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로마서 10장 1-21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10)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한 자기 마음속의 고투를 강조한다(1 절. 9:1-3 참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의 열심을 인정한다(2 절). 그러나 이 열심은 빗나갔다. 왜냐하면 이 열심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성(하나님의 의. 1:17 참조)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쓴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는 행위=공적)에 근거하여 획득하려고 요구하는 의이다(9:32; 빌 3:9 참조). 이것은 율법을 구원의 길로 곡해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안에서 이러한 곡해에 마침표를 찍으셨다(4 절). 누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옳다고 시인하고 그 목표(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낱말은 ‘목표’를 의미할 수도 있다)에 도달한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선사하시는 의에 이른다(9:30 참조).

9-10 절은 신 30:14의 입과 마음이라는 표제어를 해석한다(8 절). 예수는 주님 이시더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지배가 자기 자신의 삶과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시인함을 뜻한다(고전 12:3; 빌 2:9-11).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 사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4:24; 고전 15:1-5 참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분리적으로 한 데 속한다. 이것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미리 이루어야 할 전 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것들을 통하여 작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작용력이 있다. 11-13 절은 이 진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통용됨을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 없다

14 절과 15 상반절에 있는 일련의 수사학적 물음은 “이스라엘이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라는 근본 물음을 겨냥한다. 15 하반절은 성경에 근거하여 답변을 내린다.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 16 절은 부정적 결과를 확정한다. 17 절은 다시 한번 14-15 절을 요약한다. 17 절에 나오는 첫번째 들음은 들은 바 그것, 즉 선포의 내용을 뜻하며 두 번째 들음은 듣게 하는 것, 즉 선포 또는 설교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 선포를 뜻하는데 높이 우신 그리스도 자신이 이 복음 선포에서 말씀하신다(8 절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다.

18 상반절과 19 상반절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변명 근거를 묻는다. 이 두 물음은 배격된다. 복음의 사신은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되어있다(18 하반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스라엘의 귀와 눈을 열게 할 터이다(19 하반절, 20 절. 11:11,13-14 참조). 21 절의 성경 인용 속에 총계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애쓰신다.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and the Righteousness of Faith (Romans 10:1-21)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profess your faith and are saved.” (Romans 10:10)

Paul once again expresses his deep personal struggle and heartfelt desire for the salvation of his own people (v.1; cf. 9:1–3). He acknowledges the zeal that the Jews have for God (v.2). Yet this zeal has gone astray because it is not aligned with God’s faithfulness—God’s righteousness, which brings salvation (cf. 1:17). Instead, they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righteousness, a righteousness rooted in human effort and merit (cf. 9:32; Phil. 3:9). In doing so, they mis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Law, treating it as a pathway to salvation.

In Christ and His redemptive work, God has brought this misunderstanding to an end (v.4). Anyone who opens their heart to Christ in faith acknowledges God’s righteousness and reaches the true goal of the Law. In other words, such a person receives the righteousness that God Himself accomplishes and freely gives (cf. 9:30).

Verses 9–10 interpret the themes of “mouth” and “heart” found in Deuteronomy 30:14 (v.8). Confessing that “Jesus is Lord” is an affirmation that Christ’s reign extends over one’s own life and over the whole world (cf. 1 Cor. 12:3; Phil. 2:9–11).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means accepting the core truth of God’s saving act in Christ (cf. 4:24; 1 Cor. 15:1–5). Believing with the heart and confessing with the mouth are inseparable; they are not human works required to earn salvation. Rather, they are the means through which God’s saving power becomes active in a person’s life.

Verses 11–13 emphasize that this truth applies universally—to Jews and Gentiles alike, without distinction.

Israel Has No Excuse

The series of rhetorical questions in verses 14–15a addresses the issue: “*Was it truly possible for Israel to believe?*” Verse 15b responds with Scripture: the good news had indeed been proclaimed. Verse 16 highlights Israel’s refusal to accept it, and verse 17 summarizes aga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lamation and faith. The first “hearing” refers to the content proclaimed; the second refers to the act of proclamation itself. The “word of Christ” is the gospel message through which the risen Christ Himself speaks (cf. v.8). Therefore, Christ is the true source and originator of faith.

Verses 18a and 19a again question Israel’s grounds for excuse, and both are rejected. The message of the gospel has gone forth broadly so that all may hear (v.18b). Moreover, God’s turning toward the Gentiles was meant to stir Israel to awareness and reflection (v.19b, 20; cf. 11:11, 13–14).

The passage concludes in verse 21 with a striking scriptural affirmation: God continually stretches out His hands to His disobedient people, persistently seeking their return.

